

【논문】

혼춘 일본인사회와 혼춘사건

다나카 류이치*

차례

- I. 머리말
- II. 혼춘 일본인사회의 형성
- III. 혼춘 일본인사회와 혼춘사건
- IV. 1910년대 간도무역의 변용과 혼춘
- V. 1920년대 전반 혼춘 일본인사회의 변용
- VI.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1920년 경신참변의 발화점이 된 혼춘사건에 대해 그 배경인 간도 일본인사회 특히 혼춘의 일본인사회의 형성과 이후의 변용과정을 중심으로 밝히는 것이다.

첫째, 혼춘 일본인 사회는 러일전쟁이후 몇명의 일본인 작부여성에서 출발하였다. 현지 일본영사관 설립이후에는 페스트방역과 3·13운동, 5·4 운동 등 반일운동이 고양될 때에는 영사관 통제아래 재향군인을 중심으로 자위단을 조직해 대응했다. 혼춘사건에서는 일본인 부녀자들을 포함한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혼춘일본인회에서는 일본정부에게 계속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중국과의 외교교섭은 난항을 겪었다.

둘째, 1910년대 일본상권이 확대됨에 따라 간도와 한반도 북부지역사이의 사회경제적 관계가 긴밀해졌다. 이에 혼춘무역은 러시아혁명과 시베리아출병, 옹기항 개항, 봉직전쟁 발발과 치안불안과 같은 여러 요인들 배경으로 옹기를 통한 일본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였다.

셋째, 혼춘사건을 거치면서 혼춘을 위협시키는 시각이 일본인들 사이에 자리잡았고 혼춘재류일본인사회는 '식민지적 관념'이 강해 정상적인 사회발전을 이뤄낼 수 없었다. 한편, 1920년대 초반에 들어서자 건도지

* 중국 연변대학 외적교사(外籍教師).

역에서도 일화배척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안중근, 황병길 등 한국독립운동을 현창하는 시각이 훈춘사회에 뿌리내렸다.

주제어: 훈춘, 경신참변, 일화배척운동, 황병길, 일본제국주의, 간도

I. 머리말

오늘 아침 마적과 불령선인, 러시아인 200명과 혼란을 일으킨 약 7백여 명의 패거리의 영사분관을 습격하여 소각하고, 내지인(內地人) 부녀자(婦女子) 10명을 참살하였으며 십수 명의 중상자와 20여 명의 경상자를 냈으니 제2의 니항(尼港: 러시아 니콜라 옌스크-변역자주)과 같다. 또한 재습격 소식도 있다. 출병을 청한다(1920년 10월 2일, 「만주거류민회 회장 가도히로 켄고(門廣健吾)가 육군대신에게 보내는 전보」¹⁾).

1920년 10월 3일, 일본 육군성은 훈춘(琿春) 만주거류민회장 가도히로 켄고(門廣健吾)로부터 2일 아침에 간도(間島) 일본총영사관 훈춘분관이 ‘마적’(이하, “생략), 조선인 독립운동단체, 러시아인 등 200명을 포함한 군중 약 700명에게 습격당해 ‘내지인(內地人) 부녀자(婦女子)’ 10명이 사망, 십수 명의 중상자와 2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왔기에 현지 일본인 보호를 위한 일본군 출병을 요청한다는 전보를 받았다. 경신참변(간도출병)의 출발점이 된 제2차 훈춘사건의 발발을 알리는 전보였다.²⁾ 그렇다면 이 전보를 보낸 훈춘 일본인거류민회는 어떠한 단체이며 당시의 훈춘 일본인사회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본 논문의 목적은 1920년 경신참변의 발화점이 된 훈춘사건에 대해 그 배경인 간도 일본인 사회, 특히 훈춘의 일본인사회의 형성과 이후의 변용과정을 중심으로 밝히는 것이다.³⁾

1) 「大正九年十月二日 滿洲居留民會長門廣健吾發信陸軍大臣宛電報」(국가보훈처, 『間島事件關係書類 (I)』, 2003, 57쪽). 門廣健吾는 ‘門廣謙吾’ 등 원자료에 따라 한자 표기가 다르지만 같은 인물로 볼 수 있다.

2) 9월 12일에 발생한 사건을 제1차 훈춘사건, 10월2일에 발생한 사건은 제2차 훈춘사건이라고 한다. 본고에서는 1, 2차를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경우 제2차 훈춘사건을 ‘훈춘사건’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3) 일본 학계의 간도출병(경신참변) 연구는 활발하다고 할 수 없다. 姜德相, 『解說』(『現代史資料』28 朝鮮4),

구체적인 과제는 첫째, 경신참변에 이르기까지의 훈춘 일본인사회의 형성과정은 거주 일본인의 인구 추이와 직업 구성 및 일본인 거류민회의 조직 경위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둘째, 경신참변 당시 훈춘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한반도 북부지역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다. 후술하겠지만 일본군의 출병 요청은 훈춘, 용정(龍井) 등지의 간도 일본인사회 뿐만 아니라 한반도 북부지역의 웅기(雄基)와 청진(淸津)에서도 있었다. 이들 한반도 북부지역 주민들은 훈춘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일본군 출병을 요청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겠다.

셋째, 경신참변 이후 훈춘 일본인사회의 변용을 검토하고 경신참변이 훈춘을 비롯한 간도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みず書房, 1972), 井上学, 「日本帝国主義と間島問題」(『朝鮮史研究会論文集』 10, 1972), 東尾和子, 「琿春事件と間島出兵」(『朝鮮史研究会論文集』 14, 1977)은 훈춘사건이 일제의 모략임을 밝히는 데 역점을 둔 선구적 연구라 할 수 있다. 한편 佐々木春隆, 「『琿春事件』考(上・中・下)」(『防衛大学校紀要・人文・社会科学編』 39・40・41, 1979, 1980)는 기존연구들이 주장한 ‘모략론’의 자료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사사키(佐々木)는 ‘제2차 훈춘사건’이 가지는 특수성, 즉 이전의 마적의 습격과 달리 이때는 일본인이 주된 공격대상이었다는 점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金靜美 「朝鮮獨立運動史における1920年10月」(『朝鮮民族運動史研究』 3, 1986), 孫穎, 「『琿春事件』の事後処理について：間島における朝鮮墾民を中心として(1920~23)」(『法政大学大学院紀要』 69, 2012), 麻田雅文, 「シベリア出兵」(中公新書, 2016)이 시베리아출병과 간도출병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芳井研一, 『環日本海地域社会の変容』(青木書店, 2000)이 간도 일본인 사회를 개관한 외에는 심도 있는 실증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재만주 일본인사회의 관한 연구는 柳沢遊, 『日本人の植民地経験』(青木書店, 1999), 塚瀬進, 『満洲の日本人』(吉川弘文館, 2004), 楊園, 「偽滿洲国首都『新京』の日本人社会の形成に関する研究」(岡山大学大学院社会文化科学研究科 『文化共生学研究』 14, 2015) 등이 있다. 한국학계의 연구성과에 관해서는 황민호, 「청산리전투에 관한 연구성과와 과제」(『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5, 2020), 중국학계의 연구성과에 관해서는 许寿童, 「关于间岛惨变研究与纪念问题」(『만주연구』 10, 2010) 를 참조하기 바란다. 김태국 「청산리전쟁전후 북간도지역 일본영사관의 동향과 성격」(『한국사연구』 111, 2000)은 “기왕의 연구들은 주로 전투사에 치중된 경향을 보여온 측면이 없지 않다. … 북간도 지역의 특성과 더불어 사회사적 접근을 통한 성격규명이 요청된다고 하겠다.”고 말해 일본군과 현지 일제기관과의 관계를 밝혔다. 본 논문의 목적은 김태국논문의 문제제기를 받아, 훈춘일본인사회의 형성과 변용과정의 검토를 통해 경신참변의 사회사적 배경의 일단을 밝히는 것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인’은 일본내지인(内地人)을 가리키고 조선인은 포함되지 않다. 훈춘조선인사회에 관해서는 최석승 『훈춘조선족이민사』(연변교육출판사, 2015),尹煜 「“二等公民擲頭”下的 琿春」(『東洋史學研究』 136, 2016)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문헌 수집을 도와주신 다니가와 유키지로(谷川雄一郎)선생님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II. 훈춘 일본인사회의 형성

1. 인구추이와 직업별 구성

먼저 1910년대 훈춘의 일본인 거주 상황을 검토하겠다. 외무성 기록에 따르면 “일본인이 훈춘에 거주한 주된 이유는 러일전쟁 이후 처음에 중국인을 고객으로 하는 매춘부 및 이를 경영하는 소수의 인원에 지나지 않았다”⁴⁾라고 하듯이 러일전쟁 후부터 ‘가라유키상’으로 불리는 일본인 여성 ‘매춘부’를 중심으로 훈춘의 일본인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림1> 훈춘 성내 사진(滿鐵總務部調査課, 『吉林省其1(吉会線關係地方)』, 1919,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그리고 1910년대 훈춘 거주 일본인의 인구 추이에 대해 재간도 일본총영사관 훈춘분관에서는 “메이지 43(1910)년 이래… (훈춘에서 일본인 수는-필자주-) 168명에 달했지만 다시 감소하였다. 증가 이유는 본 현내 삼도구(三道溝)에서 사금(砂金)이 한때 성황을 이룬 것에 기인하며 음식점 등의 증가까지 이어졌으나 이후 불경기로 인해 점차 감소한 것”⁵⁾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훈춘현 내 ‘골드러시’로 한때 168명까지 인구가 증가했지만 그 내용은 음식점 등의 증가에 있었다. 그러나 이후 불경기로

4) 外務省通商局, 『滿洲事情第二輯』, 1920, 278쪽.

5) 外務省通商局, 『在支那本邦人進勢概覽』, 1915, 31쪽,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인해 점차 감소하였다고 한다.⁶⁾

<표 1> 1910년대 훈춘 일본인 인구 추이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호수	26	27	39	41	29	29	29	29
남성	36	47	67	59	45	43	39	42
여성	78	91	101	87	87	80	74	86
계	114	138	168	146	132	123	113	128

출처) 朝鮮銀行調査局, 『琿春地方ニ於ケル經濟狀況』, 1918, 44-45쪽

다음으로 1910·15·17년 시점, 훈춘 거주 일본인의 주요 직업별 구성을 살펴보면 관리를 제외하고는 여성 ‘작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하던 요리점은 사실상 중국인 고객을 상대하는 기루(妓樓)와 다름없었고 작부들은 창기와 마찬가지로였다.⁷⁾

- 6) 1915년 6월경부터 국자가(局子街) 상무회를 중심으로 일화배척운동이 고양되어 같은 지역의 일본 음식점이나 일본 잡화점 등은 타격을 입었다. 김주용은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일제의 대 간도 금융침략정책과 한인의 저항운동 연구: 1910~1920년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이 시기의 일화배척운동이 간도 경제에 미친 영향을 지적했다. 그러나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재간도 일본총영사관에서는 해당 시기의 일화배척운동은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국자가에 한정되어 용정, 두도구(頭道溝), 백초구(百草溝)에서는 영향을 찾아볼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어 일화배척운동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흉작·홍수 등 다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간도지방은 전반적으로 목하 상업이 굉장히 부진한 상태에 있음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2년전(1913년...인용자주) 이후 흉작과 홍수의 재역(災厄)을 입어 일반 구매력이 감소한 것이 그 주된 원인으로 일화배척의 결과만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단순히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만약 일화배척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기체는 일화에 대체할 만한 물자를 수입해야 할텐데 이러한 형적(形跡)은 전혀 없다.” (『大正四年六月三十日, 在間島總領事代理鈴木太太郎發信外務大臣加藤高明宛, 日貨排斥並二救國儲金ニ関シ報告ノ件』, 外務省記録, 『支那人日本品ボイコット一件日支交渉前後』第五卷)
- 7) “화류병이 중국인, 조선인(支鮮人)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음은 놀랍다. 일반적으로 위생사상이 박약하고 예방 근치(根治)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특히 만성질병 및 제3기 매독 때문에 대부분 몸 쓸병(廢疾)에 가까운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여성으로서 이 증병으로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인용자주)를 찾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은 하체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을 수치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로 중국인을 고객으로 삼는 주업부(醜業婦) 중에는 이 병에 걸려 악성에 빠지는 자가 대단히 많다고 한다”라는 기록도 있다(앞의 책, 『滿洲事情』第二輯』 19쪽).

<표2> 훈춘 거주 일본인의 주요 직업별 구성

	관료			잡화상			목수			요리점			술접대업			피고용인		
	10	15	17	10	15	17	10	15	17	10	15	17	10	15	17	10	15	17
연도	10	15	17	10	15	17	10	15	17	10	15	17	10	15	17	10	15	17
호수	1	8	9	6	4	3	1	1	-	13	8	8	-	-	-	-	-	-
남성	6	10	12	5	3	3	3	1	-	11	7	6	-	-	-	8	10	9
여성		8	4	3	4	3	1	2	-	13	11	11	46	36	48	10	5	1
계	6	18	16	8	7	6	4	3	-	24	18	17	46	36	48	18	15	10

출처) 外務省通商局, 『在支那本邦人進勢概覽』, 1915, 31-32쪽 『概覽(第二回)』, 1919, 38-39쪽

1909년 용정에 재간도 일본총영사관이 설립되자마자 <경찰범처별령>(1909년 관령 제1호)이 내려지고 “밀매음을 하거나 알선(원문:媒合容止-번역자주)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제1조)” 처분으로 정해졌다. 또한 <거류민 취체규칙>(관령 제3호)은 “여관, 하숙집, 요리점, 음식점업 및 예기(藝妓)·작부 장사는 본 관에 청원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여성 작부에 대한 단속, 감독에 착수했다.

마찬가지로 <여인숙 요리점 음식점 영업취체규칙>(관령 제4호)에서는 “요리점 영업자는 예기, 무기(舞妓) 또는 작부가 아닌 부녀자를 손님 자리에 두면 안된다(제14조)”고 규정하고 <예기 무기 작부 취체규칙>(관령 제5호)에서는 “예기 무기 또는 작부가 되려는 사람은 본 관에 출두하여 왼쪽의 사항을 갖추어 청원 감찰을 받아야 한다(제1조)”, “예기, 작부는 본 관(분관 소재지 경우는 분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제4조)”는 것이 규정되었다.

1910년에 훈춘 영사분관이 설립되고 이러한 법규는 훈춘 일본인 사회에도 적용되었다.⁸⁾

8) 外務省通商局, 『領事館令集』, 1916, 1-6쪽.

2. 훈춘 일본인 거류민회의 형성

1905년 겨울, 러시아 연추(煙秋)에서 훈춘으로 이동한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사람 오야마규에몬(大山久右衛門)은 훈춘에는 ‘작부’ 외에 중국인의 아내가 된 일본인 여성이 1, 2명 있었다고 회고했다. 1906년, 가고시마현에서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약 20명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오야마 규에몬이 초대 일본인회 회장이 되었다. 이어서 스기우라 다쓰지로(杉浦辰次郎)가 회장에 취임했다. 그 후 가고시마현 외의 다른 현의 사람들도 훈춘으로 왔기에 거류민회 운영에 한때 혼란이 발생하였다.⁹⁾ 이에 함경북도 경원군(慶源郡) 훈용(訓戎)수비대장의 인가 아래 재건이 시도되었으나 다시 우여곡절을 겪었다. 가도히로 켄고, 시바 겐타로(志波源太郎) 등을 중심으로 재조직되었고, 1915년에 이르러 <훈춘거류민회 규칙>(1915년 9월 관령 제13호)이 제정되었다.¹⁰⁾ 이 규칙을 통해 훈춘의 일본인 거류민회는 일본 영사관의 통제 하에 있는 단체이며, 훈춘의 일본인 사회가 일본의 국가 권력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훈춘 일본인사회에서 유력자는 스기우라 다쓰지로(杉浦辰次郎, 무역상, 자본금 30만 엔), 가도히로 켄고(목재상, 자본금 15만엔), 다치바나 타모쓰(橋保都, 무역상, 자본금 5만엔), 후지사와 겐키치(藤沢兼吉, 잡화상, 자본금 2만엔), 우에노 헤타로(上野平太郎, 음식점, 자본금 1만엔) 등이었는데 성쇠가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잡화영업자 5호 중에서 스기우라, 가타야마(片山), 훈와(璦和), 아이미(相見)의 각 상점은 쌀, 석유, 성냥, 담배 및 일용 잡화 등을 오사카(大阪), 부산(釜山), 청진에서 구입하여 용기를 경유하여 수입하고 오로지 중국인에게 바리로 현금 도매했다. 특히 스기우라 상점은 훈용, 경원 지방에 출장점을 두어 일용 잡화는 물론 쌀, 석유, 야채류에 이르기까지

9) 朝鮮軍參謀部, 「大正十二年・輝春事情」(陸軍省「自大正十二年至大正十三年朝鮮軍參謀部發朝特報ニ關スル綴」).

10) 「輝春居留民會規則」(大正 4年 9月 29日館令第13号). “제1조 본회는 훈춘 재류 제국신민으로 조직한다. 제2조 본회는 거류민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항을 심의처리한다. 제3조 본회에 행정위원 5명을 둔다. 행정위원은 통상 부과금의 부담자 중에서 선출하여 영사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4조 행정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행정위원은 명예직으로 영사관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외에는 사임할 수 없다. 제5조 본회에 회장 1명을 둔다. 회무를 처리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회장은 행정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영사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기 위한 부과금 과목 및 등급 등을 논의하여 정하고 영사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행정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출석을 요한다. 결의는 다수결로 하되 동수가 될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재한다. 제8조 본회의 수입지출은 매월 명세표를 만들고 다음 달 5일까지 영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 본회의 결의사항은 모두 영사관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본회는 별도 세칙을 논의하여 정하고 영사관의 인가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1조 본 규칙은 발표 날부터 실시한다”(앞의 책, 『領事館令集』 10쪽).

수출·공급하고 있었다.

3. ‘만주페스트’(1910~1911)와 일본인사회

1910년 11월 만주리(滿洲里)에서 페스트가 발생했다. 페스트는 곧 하얼빈으로 전염되었고 철도를 통해 중국 동북지방 전역으로 확산됐다. 12월 말, 훈춘과 국경을 맞댄 러시아에서는 국경을 통과하는 중국인에게 검역을 위해 5일간 구금하는 조치를 취했다.¹¹⁾ 그리고 1911년 2월, 간도 총영사관에서는 청국지방관과 협력하여 길림(吉林) 방면에서 오는 사람에게는 합이파령(哈爾巴嶺)에서, 영고탑(寧古塔) 방면에서 오는 사람에게는 영고탑 시외 및 왕청(汪淸), 수분(綏芬) 지방에서 오는 사람에게는 삼의강(三義江)에서 입경 통과를 엄격히 금하여 훈춘으로 통하는 교통을 차단하고 각 차단 지점에는 순방대(巡防隊) 병사와 의사를 파견했다.¹²⁾

국자가(局子街) 일본인회에서는 페스트 예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였다.

금1백 엔으로 제1회 방역비를 충당할 것, 일호(一戸)를 가진 회원에게 일정한 쥐덫을 배포하여 최대한 쥐잡이를 독려하고 포획한 쥐는 경찰관의 지휘에 따라 이를 처분하도록 한다. 매주 1회 이상 방역위원은 회원의 가옥을 순시하며 청결 방법에 힘쓰고 특히 쥐잡이를 감독하는데 이 때는 경관의 입회를 청구하도록 한다. 제1회 방역 때에는 각 호당 석탄산 2파운드 비례로 구입하여, ‘포르말린’ 등도 각 호당 1파운드의 비율로 매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요소(要素)의약품류와 기계 등에 이르는 것은 자문의사에게 상의하여 수시로 매입하도록 한다. ... 청국 관헌이 시행하는 방역 방법을 시찰하는 것이 우리 방역상에 크게 필요할 때는 부영사의 소개로 본회 부회장 및 자문의사로 하여금 청국 관헌의 영소(當所) 기타 방역상황을 시찰하도록 한다. 각 요리점은 특히 방역을 위해 손님이 통행하는 장소에 적당한 장치를 마련하여 이에 적절한 소독약을 비치하여 출입 시 부지불식간에 이를 밟게 하고, 짚신, 구두 및 나막신 등에 붙어 있는 병균을 소멸시킬 수 있게 하라.¹³⁾

11) 「明治四三年十二月二六日, 間島總領事永瀧久吉發信外務大臣小村寿太郎宛·露境ニ於テ清國人ニ對シ「ペスト」檢疫施行ノ件」(外務省記録, 『滿洲ニ於ケルペスト病勢及予防措置報告 第一卷』).

12) 「明治四四年二月一日, 間島總領事永瀧久吉發信外務大臣小村寿太郎宛電報」(外務省記録, 『滿洲ニ於ケルペスト病勢及予防措置報告 第一卷』). 김주용(「일제의 대 간도 금융침략정책과 한인의 저항운동 연구」,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0)은 이 교통 차단이 간도 무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하였다.

13) 「明治四四年二月八日, 在局子街副領事速水一孔發信在間島總領事永瀧久吉宛, ペスト病予防ニ關スル件統報」(外務省記録, 『滿洲ニ於ケルペスト病勢及予防措置報告 第一卷』).

훈춘 일본인회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훈춘에서도 청국 관헌과 협력하여 오로지 예방법을 실시하고 쥐잡이는 훈용진(訓戎鎭) 헌병분대장과 협의하여 이 분대로 보내 회령에서 검균하게 한다”¹⁴⁾라고 한 것은 거의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6월에는 러시아 측의 국경 통과자에 대한 검역, 구속도 종료하여 페스트는 종식됐다.

Ⅲ. 훈춘 일본인사회와 훈춘사건

1. 경신참변 전야의 훈춘사회

1) 또 하나의 ‘훈춘사건’(1917년)과 황병길(黃炳吉)

1920년 경신참변의 계기가 된 ‘훈춘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917년 9월, 또 하나의 ‘훈춘사건’이 발생했다. 훈춘에 식염을 밀수입하려던 조선인 10여 명이 중국 관헌에 구류되었기에 재훈춘 일본영사분관이 이들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중국측 관헌은 이 요청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측 순경을 영사분관 내로 진입시켰다. 영사분관에서는 자위(自衛)를 이유로 경원수비대와 헌병에게 응원을 요청했고 경원에서 약 100명, 종성(鐘城)수비대에서도 인력을 파견했다. 이에 따라 중국측에서도 중국군 병사를 훈춘 인근에 200여 명, 양수천자(凉水泉子) 부근에 100여 명을 증파하였고, 그 결과 긴장이 고조되었다. 일본측에서는 회령(會寧)에서 경원으로 보병 1개 중대, 종성으로 약 40명을 파견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했다.¹⁵⁾

일본측은 중국측과의 교섭과정에서 “①헌병 10명을 주둔시킬 것, ②상부지(商埠地) 내 조선인은 우리 영역에서 함부로 체포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 것, ③훈춘, 조선 간의 전선을 속히 개설할 것, ④훈춘 서문 밖을 차지(借地)하여 조선인의 시장을 허용할 것”¹⁶⁾을 요구했다. 결국 중국측은 구속한 조선인의 신병을 넘기지 않은 채

14) 「明治四四年二月二日、間島總領事永瀧久吉發信外務大臣小村寿太郎宛、間島方面ペスト疫予防ニ關スル報告」(外務省記録、『滿洲ニ於ケルペスト病勢及予防措置報告·第一卷』). 상부지(商埠地)란 1905년 ‘청일만주선호조약(淸日滿洲善後條約)’ 제1조에 근거하여 청국이 외국인 거주지로 지정, 개방한 지역을 뜻한다(번역자주).

15) 參謀本部, 「(大正六年)自九月一日至九月三十日·支那ノ情況」(外務省記録, 『各國內政關係雜纂·支那ノ部·第十三卷』).

16) 「大正六年九月二十日附在支林權助公使發信本野一郎外務大臣宛電報要旨·瑯春事件ニ關シ撤兵方外交

석방하며 사죄만 하였고, 일본측에서도 다음달 10월에 철병하면서 사태는 일단 진정되었다.

이 ‘훈춘사건’ 와중에 저명한 훈춘 거주 조선인 독립운동가 황병길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황병길(1883~1920)은 함경북도 경원의 소작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안중근과 단치동맹을 맺고 기독교를 믿었으며 러시아 연해주, 북간도 지역에서 학교 설립, 군자금 모금, 조선 내 진입작전 등 폭넓은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훈춘사건’이 발생하자 현지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군을 방문해, 중국군이 일본군을 공격하면 자신도 군사를 이끌고 가세하겠다고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요청했다. 그 소식이 훈춘의 일본영사분관에 누설되어 영사분관측에서는 황병길의 체포를 결정하고 황병길이 거주하고 있던 연통랍자(煙筒砬子)를 사복경찰 10명과 헌병 17명이 급습해 현지 주민과 총격전이 벌어졌다. 결국 황병길과 조선인 1명이 체포되었다.¹⁷⁾

2) 훈춘의 ‘3·13운동’

경신참변 전야 훈춘 시내의 민족별 구성을 보면, 1919년 7월 현재 훈춘 시내 총 호수는 1, 082호, 남성 4, 579명, 여성 684명 등 총 5, 263명이었다. 그 중 중국인 호수 846호, 남성 4, 175명, 여성 378명 등 총 4, 553명으로 압도적 다수가 중국인 남성임을 알 수 있다. 조선인 호수는 185호, 남성 321명, 여성 240명, 총 561명, 일본인 호수는 48호, 남성 78명, 여성 65명, 총 143명이었다. 이 시기 일본인들은 훈춘 상부지 내에 거주하며 바깥에는 거주하지 않았다. 그 외에는 이탈리아인 호수 2호, 남성 4명, 여성 1명, 러시아인 호수 1호, 남성 1명이었다.

간도에서도 3·1운동이 일어났다. 용정을 중심으로 3·13독립운동이 발발했고 훈춘에서는 3월 20일에 대규모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¹⁸⁾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재훈춘 일본영사분관에서는 일본수비대와 헌병대에게 경원에서 출동 준비를 갖출 것을 요청하는 한편 훈춘현 지사에게 재류일본인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훈춘현 지사는 일본인 거주지역인 동서문에서 서쪽의 서대묘(西大廟), 남쪽의 훈춘강(琿春河) 및 북쪽의 무명천(無名川)에 이르는 구간에는 침입을 불허하고 교통을

部ヨリ照会ノ件」(『外務省警察史』 19, 不二出版, 1998, 165-166쪽).

17) 김동화, 「황병길의 생애와 독립운동」(김동화, 『중국 조선족 독립운동사』, 느티나무, 1991); 김주용, 「황병길의 생애와 독립운동」(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 2010).

18) 김동화, 「3·13 반일시위운동과 연변청년학생」(앞의 책, 『중국 조선족 독립운동사』).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훈춘 시내에서는 며칠 전부터 운동 발발 조짐이 보여 조선 인·중국인의 상점이 문을 닫았다. 일본영사분관 앞에 사람의 왕래가 증가하자 긴장이 고조되었다. 평소 영사관원이나 일본인을 만나면 인사를 하던 현지인들이 “결혼 질하며 마치 원수 같은 모습”¹⁹⁾을 보이고 있다. 보통학교 학생들은 모장(帽章)이나 학급 표시의 흰 선을 제거했다고 한다.

20일 오전 8시 북일(北一)중학교, 광동(光東)학교, 사립국민학교 학생 200여 명이 동문 바깥에 모여 4열 종대로 성안으로 진입했다. 스키우라상점 앞 광장에 모였을 때는 약 700여 명으로 불어나 있었다. 사람들은 손에 종이로 만든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며 원형을 만들어 돌기 시작했고 ‘독립선언서’를 뿌렸다.²⁰⁾ 시위대를 이끌던 황병길이 단상에 올라 태극기를 흔들며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자 현장은 만세를 부르며 들뜬 분위기에 휩싸였다.

우리 조선인은 열국의 승인으로 국가의 치욕을 면하고 독립을 이루어 지난 10년간 해외로 유랑했어도 지금은 완전히 독립국의 국민이 되어 기쁘기 짝이 없으니 이에 제군과 함께 만세를 부르리라.²¹⁾

일본측에서는 “사람들이 훈춘영사분관 앞에 이르러 만세를 부르고 국기를 끌어내려서 들고 갔다. 끊임없이 러시아령 방면에서 집합 중이며, 지휘관은 황병길인데 인축(人畜)에게 위하는 없다”라고 보고했다.²²⁾ 만세를 외친 사람들은 오후 1시경 동문 밖에서 해산했으나 일부는 다시 성안으로 들어갔고 “사실상 한국이 독립한 것으로 오인하고 축하의 의미에서 음주·만취했다”고 한다. 일본영사분관에서는 집회가 끝난 뒤 태극기를 회수했다. 훈춘 일본인거류민회에서는 전날부터 재향군인 및 장정 50여 명으로 자위단을 조직해 경찰관과 일치된 보조를 취하고 경계했다.²³⁾ 이처

19) 「大正八年三月二十日，在琿春秋洲都三郎分館主任發信內田康哉外務大臣宛電報要旨，·鮮人ノ獨立示威運動ニ関スル件」(『外務省警察史』 20, 15쪽).

20) 훈춘의 ‘독립선언서’에 대해서는 김소진, 『한국독립선언서연구』(국학자료원, 1999, 178-190쪽)를 참조하기 바란다.

21) 앞의 자료 「大正八年三月二十日，在琿春秋洲都三郎分館主任發信內田康哉外務大臣宛電報要旨，·鮮人ノ獨立示威運動ニ関スル件」.

22) 「大正八年三月二十一日，朝鮮軍司令官·琿春領事館前における抗日武装示威運動報告の件」(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Ⅲ』, 原書房, 1967, 17쪽).

23) 앞의 자료 「大正八年三月二十日，在琿春秋洲都三郎分館主任發信內田康哉外務大臣宛電報要旨，·鮮人ノ獨立示威運動ニ関スル件」.

림 훈춘을 비롯한 간도 일본인 사회에서는 재향군인들이 중심이 되어 영사관 경찰과 협력하며 자위단을 조직하는 등 민관이 하나가 되어 행동을 취했다.

3) 훈춘에서의 '5·4운동'

중국의 5·4운동은 훈춘에도 영향을 미쳤다. 6월 하순,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인 훈춘으로 돌아와 있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전개되었다. 국자가 소재 도립중학교와 사범학교 학생 20여 명은 시내 상점에게 일화배척운동을 권유했을 뿐만 아니라 훈춘소학교 학생들을 모아 선동했다.²⁴⁾ 그리고 “청도(靑島)를 되찾자”, “외교를 만회하자”, “일본 상품을 배척하자”, “21개조를 취소하자”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또한 ‘연길학생총단’(별칭 ‘동남로(東南路)학생단’)을 조직해 운동을 전개했다.²⁵⁾

훈춘에서는 「북경(北京)농업전문학교 학생선언서」, 「상공 각계를 향해 속히 국시(國是)를 도모할 것을 권하는 글」, 「산동(山東)은 과연 산동인의 것인가」 등 갖가지 항일격문이 살포되었다. 일본측에서는 “인민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파악했다.²⁶⁾ 훈춘 각 상인조합에서는 ‘십인단(十人團)’이라 부르는 ‘배일단체’를 조직하여 일화배척운동을 전개하였다.²⁷⁾

24) 「大正八年七月四日, 琿春副領事秋洲郁三郎發信外務大臣内田康哉宛, 學生ノ日貨排斥運動ニ関スル件」(外務省記録, 『支那ニ於テ日本商品同盟排斥一件·第四卷』).

25) 김동화, 「연변에서의 '5·4'운동」(앞의 책, 『중국 조선족 독립운동사』).

26) 「大正八年八月六日, 在琿春副領事秋洲郁三郎發信外務大臣内田康哉宛, 山東問題ニ對スル檄文ノ件」; 「大正八年八月七日, 在琿春副領事秋洲郁三郎發信外務大臣内田康哉宛, 抗日檄文撒布ニ関スル件」(外務省記録, 『支那ニ於テ日本商品同盟排斥一件·第四卷』). 「북경농업전문학교학생 선언서」에는 “산동은 중국의 산동이다. 장조(章曹) 등은 이미 산동을 팔았다. 이는 중국을 판 것과 다름없다. 매국노(虎國ノ賊)는 사람들이 벌할 수 있다. 그래서 전날 구타한 것은 매국노이지 장조이 아니다 ... 우리들은 전날 구속된 학우의 방면을 요구함과 동시에 노력할 일을 진행하여 산동문제 주체 논쟁에는 감언에 속지 않고 위무(威武)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매우 행복할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상공 각계를 향해 속히 국시를 도모할 것을 권하는 글」에는 “파리강화회의는 공도(公道)로써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도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은 주장(원문:詞·번역자주)을 강하게 하여 이를 탈취하려 하고 있지만 아직 조인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國人)이 일치하여 싸우면 곧 인도(人道)의 공리(公理)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사람이다 ... 무릇 청도는 산동의 문호이고 산동은 북경의 목구멍이며 남북의 중축(원문:樞紐·번역자주)이다. 청도를 잃으면 산동이 위험하고 산동을 잃으면 북경이 불안해지고 남북이 따라서 어려워진다 ... 즉 나라를 망하게 할 뿐이다. 각계의 상공업자는 속히 이를 꾀하라”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산동은 과연 산동인의 산동인가」에는 “우리들은 또한 산동의 동포들에게 고한다. 우리 북경 당국은 이미 산동을 버리고 중화민국을 버리고자 결심했다. 이에 따르는 것은 무익하다. 이를 원하는 것은 무익하다. 국민 자결(自決)을 도모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아야 동포여. 산동은 중화민국의 산동이지 산동인의 산동이 아니다. 중국을 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산동을 구하라. 산동을 구하고자 한다면 속히 각자 떨쳐 일어나라”라고 적혀 있다.

27) 「大正八年八月十一日·在琿春副領事秋洲郁三郎發信外務大臣内田康哉宛·排日文書檄文ニ関スル件」(外

2. ‘훈춘사건’(1920년)과 일본인사회

1920년 10월 2일 새벽 4시경 마적 400명은 훈춘 북쪽에 있는 청구자(靑溝子)에서 동서 두 방향으로 나뉘어 훈춘 현성을 습격했다. 대포로 3곳의 성문을 제압하고 기관총 2개로 성안으로 침입했다. 이후 일본영사분관을 비롯한 6곳의 상점에 불을 지르고 약탈, 방화, 살인을 저질렀으며, 8시경 훈춘 현성 서북 관문 추자(咀子)를 거쳐 노흑산(老黑山)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이 습격사건으로 100여 명이 납치되고 관첩(官帖) 5만여 적(吊), 현금(원문:現款) 260여만 적이 약탈당했다. 피해 물품은 관첩으로 환산했을 때 640만여 적에 이르렀다고 한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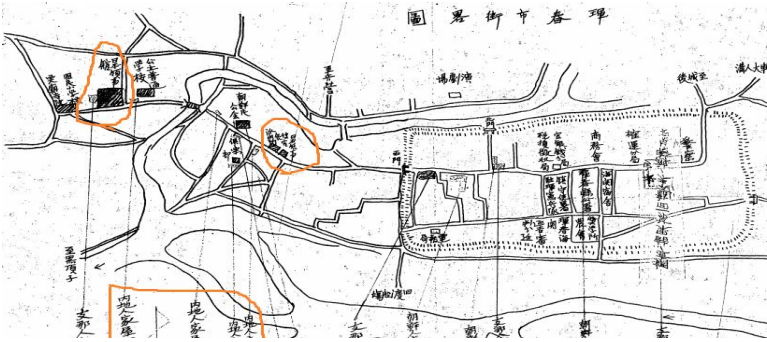


<그림> 훈춘시가지

(滿鉄東亜經濟調査局, 『東部吉林省經濟事情』, 1928, 所収)

務省記録, 『支那ニ於テ日本商品同盟排斥一件·第四卷』. ‘십인단은 “우리 나라를 구하고자 급히 십인단을 조직했음은 왼쪽과 같다. 1. 본 단의 정식 명칭은 십인단으로 한다, 각자 은밀하게 친척, 친구 및 동지자와 연락하여 10명 혹은 10명 전후로 조직한다. 지방에서는 2집을 단위로 삼는다. 10가 혹은 10가 전후를 모아 1단으로 만든다. 이는 지방의 상황을 참작하여 정한다. 2. 본 단은 국화(國貨)를 유지하고 각지의 단체와 연락하여 국가를 위급에서 구하는 것을 주지(主旨)로 한다. 3. 1단마다 20대표자 1인, 매10에 100대표자 1인, 매100단에 1000대표자 1인을 두고 대표단원과 각지의 십인단과는 연락 협의하여 그 구국의 방략을 도모한다. 4. 무릇 십인단 단원은 국화를 구입, 사용하되 필수품 중에 국화가 없을 경우는 우방의 물자를 대용하지만 결코 적의 물자를 구입, 사용하는 것을 허하지 않는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28) 김동화, 「초기 만주이민과 훈춘사건」(앞의 책, 『중국 조선족 독립운동사』).



<그림3> 훈춘시가지 약도(外務省記錄,
『琿春ニ於ケル朝鮮人暴動一件發端及經過情報ノ部第一卷』)

훈춘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9월 중순부터 훈춘에는 마적이 습격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매일 밤 일본영사분관에 대피해 있던 상황이었다. 사건 전날인 10월 1일, 대황구(大荒溝)의 중국 공병대가 마적에게 습격당해 궤멸되었고, 일부 공병대원들이 마적에 가담하여 훈춘 성내를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었다. 중국 당국에서는 약 270명의 병사와 경찰을 동원하여 일본영사분관 부근과 일본인 거주지역을 수비하며 경계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막상 마적의 공격을 받자 중국 병사들은 저항 없이 퇴각했고 일본영사분관은 마적에게 포위당했다.²⁹⁾

사건이 일어난 후 훈춘 재류 일본인 대다수가 경원으로 피난했다. 조선군참모부에서는 “우리 거류민 중 부녀자 전부와 남자 약 3분의 2가 경원으로 피난했고 선지인(鮮支人) 역시 재산을 챙겨 시골로 피난한 자가 많아서 시가지는 완전히 적막해졌다”³⁰⁾라고 보고했다.

사건 발생 후 이소바야시 지대를 비롯한 일본군이 훈춘에 주둔했다. 1921년 5월 현병이 철수할 때의 자료에 “청숙사(淸宿舎) 기타 건물 처분 상황, 임대(借上)했던 상등병 숙소는 7일자로 해약하고 또한 무료 임대했던 청사 및 반장 숙소는 8일 영사분관 경찰서원의 입회 하에 인도(引渡)했다”³¹⁾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 훈춘 일본인

29) 「大正九年十月三十一日、在琿春秋洲都三郎分館主任發信內田康哉外務大臣宛電報要旨」(『外務省警察史』 21, 不二出版, 1998, 36-38쪽).
 30) 朝鮮軍參謀部, 「大正九年十月二十三日、琿春事件ニ就テ」(국가보훈처, 『간도사건 관계서류(II)』, 2003, 232쪽).
 31) 朝鮮憲兵司令官 前田昇, 「間島及琿春派遣憲兵撤退狀況の件報告」(한국사료연구소, 『朝鮮統治史料』 2, 1970, 518쪽).

사회에서 일본군에게 편의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3> 훈춘사건 발생경과와 간도파병경위

사건	월 일	시간	사건내용
제1차 훈춘사건	9월 12일	오전 5시 ~8시 30분	마적약 300명 훈춘시 가을 습격, 약탈 방화. 응원경찰대 파견. 15일 철수.
	9월 16일	.	마적습격 소문발생, 응원대 파견. 17일 철수.
	9월 30일	.	마적 약 50명 대황구(大荒溝)중국 공병대 습격, 무기 등 약탈.
제2차 훈춘사건	10월 1일	.	마적습격 정보입수. 중국관병 경계 강화. 훈춘일본영사는특사파견, 응원 요청.
	10월 2일	오전 4시 ~8시 30분	마적 훈춘 습격.
		오전 9시	경원수비대 이소카와(五十川)특무조장(준위) 이하 10명 훈춘 도착.
		오후 7시 30분	경원수비대 80명 훈춘 도착.
	10월 3일	오후 4시	아베(安部)소좌 지휘하 보병1중대, 기관총1소대훈춘도착.
		3일 밤 ~4일 미명	마적습격, 격퇴.
10월 4일	오전 4시	이도구(二道溝)통신소(훈춘~훈용간중계소, 공병장교이하30명근무) 습격 당해, 병사1명 부상.	
간도파병 경위	10월 3일	오후 5시	용정사카이(塙) 총영사 대리, 우치다 외상에게 출병 요청 전보 발신. 도교외무성 4일 오전 8시 40분 전보 접수.
	10월 4일	오후 11시 30분	사카이 총영사 대리, 출병 요청 전보 다시 발신. 도교외무성 5일 오전 7시 10분 전보 접수.
	10월 6일	오후 2시	제19사단장, 회령 보병2중대, 일부기병을용정파견
	10월 7일	새벽	보병2중대 용정 도착.
		.	출병각의결정.
	10월 9일	.	조선군사령관 및 블라디보스토크 파견 군사령관에게 간도 출병 명령.
		.	(훈춘파병상황)보병 제7련대본부 및 보병2대대, 기관총4, 보병포2, 기병1(반소대결), 야포병1중대, 공병1중대
		.	(용정파병상황)보병 제73련대본부 및 보병2대대(국자가 및 두도구에 보병각1중대), 기관총6, 보병포2, 기병1중대, 공병 제19대대(1중대결)
	10월 14일경	.	(훈춘방면파병상황)이소바야시(磯林)지대
		.	(용정방면파병상황)아즈마(東)지대
.		(왕청방면파병상황)기무라(木村)지대	

출처) 佐々木春隆『『理春事件』考<上>』(『防衛大学校紀要-人文-社会科学編』39, 1979)를 바탕으로 『間島出兵史(上)』(『朝鮮統治史料』2, 1970), 『外務省警察史』21(1998)을 참조해, 재정리함.

사건 발생 1개월이 경과한 11월에는 훈춘거류민 대표자들(가도히로·스기우라·아베 安陪·마쓰오카松岡)은 “본 지방에 우리 군대를 주둔하게 할 것”을 청원했다. 이와 함께 부대사항으로 중국지방관은 일본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를 임명하도록 중국당국과 교섭할 것, 영사분관을 영사관으로 승격시킬 것, 영사(부) 또는 서기생으로 중국어를 아는 사람을 임명할 것, 납치자 귀환을 위해 교섭을 실시할 것, 과격사상 침입 방지에 노력할 것, 재류 조선인에 대해 ‘일시동인(一視同仁)’의 결실을 올릴 것, 외무성 및 조선총독부는 향후 한층 더 상호 이해 소통에 힘쓸 것, 중국측 책임자 처벌, 교통기관 완비를 요구했다.³²⁾

1921년 3월 12일, 일본군의 간도철군을 내용으로 하는 「훈춘진정서」가 작성되었다. 작성자는 훈춘 거주 ‘내선인 대표자’ 이근양(李根陽)이다. 대표자는 조선인 이근양 한 명이지만 훈춘 거주 ‘내선인 대표자’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일본인과 조선인의 융화를 강조하는 의미로 조선인을 대표자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황군 출병 토벌 이래 훈춘지방은 평온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는 표면상 일 뿐 실정과 주위의 관계는 아주 낙관할 수만은 없다. 우리 출정군은 그 지방 일대를 소탕하고 일반 양민은 차츰 안도하여 본업에 안주했지만 그 기간은 매우 짧다 … 이제 황군 토벌의 효과는 수포로 돌아가 다시 위험상태를 드러내려 하고 있으며 … 그래서 우리제국에서는 일차적으로 재류 제국 신민의 생명재산의 안전을 기하고, 다른 한편 과격 사상의 남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본 지방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군대를 주둔시키고 기득 이권을 옹호함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왼쪽의 각 조항을 실시하고 거류 신민의 복지증진에 힘쓰기를 갈망한다³³⁾.

이들의 진정항목은 ①육군 철군 연기, ②훈춘현에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에 관한 조약’ 실시, ③조선인에 대하여 일본인과 같은 대우를 할 것, ④마적의 훈춘 습격 때문에 입은 일본인·조선인의 손해배상, ⑤최근에 일어난 조선인 피살사건에 대한 중국 책임자 처벌 및 손해배상, ⑥조선인을 부영사, 서기생 및 경부 임용, ⑦현하 사도구(四道溝), 대황구(大荒溝)에 영사관 분관 신설, ⑧교육, 위생, 금융기관 설치, ⑨통신기관의 보류(군사통신시설을 그대로 남길 것…인용자주) 및 교통기관 급속 설립, ⑩수입관세 경감, ⑪영사관 관하의 인민으로 조직하는 자문기관 설치, ⑫귀순자의 관

32) 「大正九年十一月五日・在琿春副領事秋洲郁三郎發信外務大臣內田康哉宛・琿春在留民請願書送付ノ件」(外務省記録, 『琿春ニ於ケル朝鮮人暴動一件・在留民請願及決議ノ部』).

33) 「琿春陳情書」(앞의 자료 『琿春ニ於ケル朝鮮人暴動一件・在留民請願及決議ノ部』).

공리 채용이다.

제2차 훈춘사건은 일본인을 주된 공격대상으로 한 특이한 사건이었지만 피해자 규모와 내용에 관해서는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우선 앞에서 인용한 가도 히로의 전보에는 “내지인(內地人) 부녀자 10명을 참살하였으며 십수 명의 중상자와 20여 명의 경상자를 냈다”라고 쓰여 있다. 1920년 10월 3일 조선군사령관이 육군대신에게 보낸 전보에는 “내지인(內地人) 사망자 10명, 부상자 20여 명 … 부녀자까지 참살”³⁴⁾이라고 쓰여 있다. 조선군사령부, 『間島出兵史(上)』에는 “사망자 14명 (조선인 순경 1명 포함), 중경상자 30여 명, 조선인, 중국인 피해자는 영사관에 구급 중인 조선인 3명과 중국인 1명뿐”³⁵⁾이라는 기록도 있다. 또한 「大正九年十一月二十三日及同年十二月四日付在琿春秋洲郁三郎分館主任發信內田康哉外務大臣宛報告要旨, 琿春事件ニ因ル死亡者ノ件」(『外務省警察史』 21, 64쪽) 및 일본외무성기록 『琿春ニ於ケル朝鮮人暴動一件·本邦側被害ノ部·被害申告書第一卷』에는 <표4>과 같이 일본인 사망자 11명 (남성C는 조사 후 명단에서 제외)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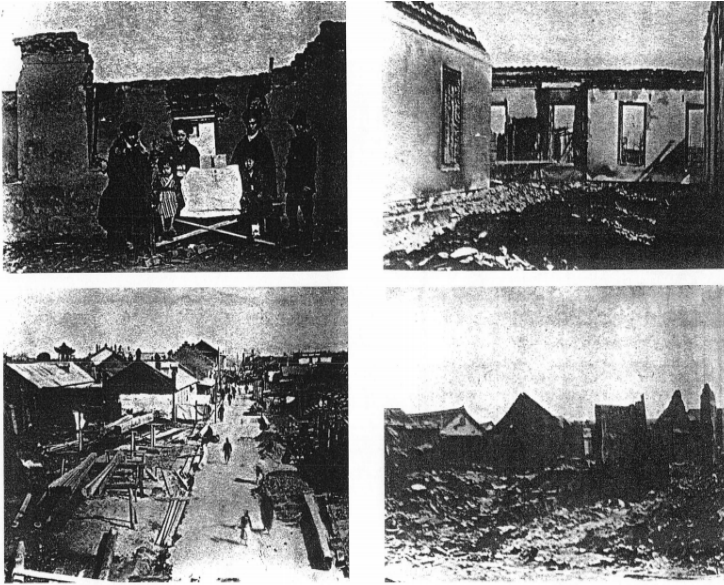
<표4> 훈춘사건 일본인 사망자

	성별	연령 (살)	출신지	직업
A	남	54	후쿠오카	영사관경찰
B	남	51	나가사키	목재상
C	남	37	히로시마	목록 없음
D	남	35	오카야마	잡화상
E	여	26	오카야마	D의 처
F	남	34	아이치	목재업
G	남	35	아오모리	조선총독부 경부 파견원
H	여	1	아오모리	G의 차녀
I	남	29	가나가와	목수
J	여	21	나가사키	여종업원
K	남	2	사가	영사관 직원의 차남

출처) 『琿春ニ於ケル朝鮮人暴動一件·本邦側被害ノ部·被害申告書 第一卷』

34) 「大正九年十月三日·朝鮮軍司令官發信陸軍大臣宛電報」(앞의 책, 『朝鮮統治史料』 2, 1970, 349쪽)

35) 「間島出兵史(上)」(앞의 책 『朝鮮統治史料』 2, 1970, 15쪽)



<그림4> 훈춘사건 사진(『간도사건 관계서류(II)』, 국가보훈처, 2003, 314쪽)

일본정부는 중국측에게 사상자에 대한 조위금 및 위적금(慰籍金), 재산상의 손해 배상, 책임자 처벌, 중국 중앙정부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측이 훈춘사건의 처리를 일본군의 철군 문제와 떼어놓고 논의할 수 없다고 하여 교섭은 정체되었다. 결국 일본군이 철수한 후에야 교섭이 재개되었다. 하지만 교섭과정에서 중국측은 일본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해 우려했다. 그 결과 손해배상액을 결정 한 후 교섭을 재개하게 되었다.³⁶⁾

일본측에서는 아래와 같은 피해사실과 손해배상을 중국측에 요구했지만 그 후에도 중국측은 일본군 철군 후의 일본측 경찰관 증원 등을 이유로 교섭을 지연시켰다. 이로 인해 훈춘 일본인거류민회에서는 거듭 중앙정부에 손해배상을 청원했으나 1930년대에 들어서기까지 여전히 해결을 보지 못했다.

36) 「揮春事件自体ニ関スル支那側トノ交渉経過」(『第四十五議會說明資料-亜細亜局第三課管掌事項』). 훈춘사건에 대한 중일 양국 간의 교섭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편, 『간도사건 관계서류(Ⅰ)』(2003)에 수록된 蔡永國의 「해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蔡永國의 「해제」에 따르면 경신참변에 의한 조선인 피살 인원은 3, 693명, 체포인원 171명, 부녀강간 71건, 가옥소실은 3, 288건, 학교소실은 41건, 교회소실은 16건, 양곡소실은 53, 415석이다.(16-17쪽. 자료근거는 『독립신문』 1920년 12월 28일자, 1921년 1월 27일자 기사).

결국 1932년에 제정된 <조폐국(造幣局) 대금지불(貸金支拂)에 관한 법률>(쇼와 昭和 7년 법률제12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의 “구제적 은혜(救濟の恩惠)”로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처리되었다.³⁷⁾

<표 5> 훈춘사건 일본인 피해상황

피해사실	인원수	피해액
사망자유가족	26명	12만7000엔
부상자	8명	3만6000엔
납치자	1명	4500엔
방화가옥	2호	6000엔
일반피해자	139명	4만1700엔

출처) 外務省記録, 『珲春ニ於ケル朝鮮人暴動一件・本邦側被害ノ部・被害申告書 第一卷』

IV. 1910년대 간도무역의 변용과 훈춘

훈춘사변에 대해 시민대회를 열고 왼쪽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의결한다. 이번에 발발할 훈춘사변은 훈춘 및 간도 일대, 북선(北鮮)무역을 두절시키고 우리 동포들을 사지에 빠뜨리고 나아가 제국의 국위를 심히 실추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정도껏 훈춘 및 간도 일대 지역을 무력 점령하기 바란다.

(1920년 10월 7일, 「조선 웅기 시민대회에서 육군대신에게 보내는 전보」³⁸⁾)

이번에 돌발한 훈춘사변은 날로 형세가 더욱 험악해져 바야흐로 국자가, 용정촌 또한 위기에 처하려 한다. 따라서 훈춘 간도 건너편의 북선의 무역도 두절되어 각종 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고 우리 동포의 생활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 정부는 적절히 간도 일대에 걸쳐 신속하게 무력 점령을 감행하여 영구히 질서 유지, 안녕 회복에 그 전력을 기울이고 국위 선양에 힘써야 한다.

(1920년 10월 7일, 「조선 청진 부민대회에서 육군대신으로 보내는 전보」³⁹⁾)

37) 「珲春事件ニ関スル措置」(『外務省警察史』 21, 106쪽).

38) 「大正九年十月七日・朝鮮雄基市民大会發信陸軍大臣宛電報」(앞의 책, 『朝鮮統治史料』 2, 353쪽).

39) 「大正九年十月七日・朝鮮淸津府民大会發信陸軍大臣宛電報」(앞의 책, 『朝鮮統治史料』 2, 355-356쪽).

훈춘사건이 발발하자 한반도 북부의 옹기, 청진에서도 간도에 대한 일본군 출병 요청이 있었다. 위의 정보는 모두 훈춘을 포함한 간도지방과 한반도 북부지역 사이의 무역관계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옹기, 청진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었다. 함경북도 지방과에서 편찬한 『함북요람(咸北要覽, 1924년 초판, 1926년 개정5판)』을 통해 간도 및 훈춘의 경제계 동향이 함경북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⁰⁾

대정(大正) 6년(1917) 11월, 청회(淸會)철도 전면개통의 결과 기존에 길림(吉林) 및 블라디보스토크(浦潮)를 경유하여 반입된 화물은 거의 대부분 회령에서 반입되고 있다. 더욱이 도문(圖門)철도와 천도(天圖)철도의 개통은 완전히 함북과 간도를 융화시켰다. 또한 훈춘도 종래는 블라디보스토크 방면에서 반입되었지만, 옹기·경흥(慶興)간 1등도로 개수 이후 본 도로를 통과하는 대부분을 접하기에 이르렀다. 지리·교통관계상 간도 및 훈춘에 대한 수출입은 모두 본 도로의 내선인(內鮮人)의 손으로 이루어지며 간도 및 훈춘에서의 경제계의 변동은 금세 본 도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다(191-192쪽).

1. 1910년대 간도무역

간도 무역에는 길림, 훈춘, 청진 세 가지 계통이 있었다. 처음에는 국자가를 거점으로 하는 중국인 상인에 의한 길림계 무역이 가장 번성하여 간도 무역의 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훈춘계 무역이 그 뒤를 이었으며 용정을 거점으로 하는 청진계 무역은 가장 열세였다. 1910년 기준 민족별 수입액을 보면 중국인 상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조선인 상인이었으며 일본인 상인이 가장 열세였다. 그러나 1910년 전후를 기점으로 이러한 무역구조는 크게 변모한다.

그 이유는 첫째, 1909년 함경북도 청진항이 개항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청진항을 출발해 회령을 경유하는 간도 무역 인프라가 정비되었다. 둘째, 1910년 청진을 경유하는 간도무역에는 조선에서의 통과무역 관세 면제가 실시되었다. 셋째, 러일 전쟁의 영향으로 러시아의 물가가 폭등했기 때문에 1909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제 폐지가 결정되고 이듬해 1910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그 결과 기존 블라디

40) 김주용, 「일제의 대 간도 금융침략정책과 한인의 저항운동 연구」는 1910년대 간도 무역의 변용을 용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해당 시기 간도 무역의 구조변화 속에서의 훈춘 무역의 변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보스토르크에서 훈춘을 경유해 간도로 수입되는 면제품 등 공산품에는 중세가 부과되었고 청진을 경유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1917년에 청진·회령간 철도(청회선) 전면개통으로 청진 계통의 무역 우세가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함경북도 주민의 주식인 조는 함경북도 총 경작지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간도에서 약 3만 석을 수입하고 있었다.⁴¹⁾ “간도 곡류의 남향을 막으면 아마 우리 제국의 함경도에 기아 민이 생긴다”⁴²⁾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렇게 “청진의 개항은 직접 물자를 간도(연길, 왕청)에서 교역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 훈춘 시장의 거래 범위를 현저히 감소시켜 겨우 훈춘현 전체와 왕청현의 반 정도를 남긴 것에 불과하다”⁴³⁾라고 하듯이, 간도 무역에서 청진계 무역이 1위를 차지했고 길림계가 그 뒤를 잇게 되면서 훈춘계 무역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청진계 무역의 우세는 즉 일본 상인의 우세”⁴⁴⁾, 즉 용정춘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 상권의 확대를 의미했다.

2. 1910년대 훈춘무역

훈춘 무역은 주로 러시아 경유와 조선 경유로 나뉘는데 교통수단 관계상 러시아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훈춘을 통해 러시아에서 간도로 공업제품이 수입되고 간도의 농산품이 러시아로 수출되었다. 1910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폐지 후에도 좁쌀이나 콩지게미 같은 간도 농산품의 수출은 러시아 경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⁴⁵⁾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블라디보스토크-포셋 간의 정기항로가 정지된 점, 포셋 주둔 러시아 병사의 감소, 길림 관철·루블의 하락과 물가 등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러시아 경유 무역은 감소하게 되었다.⁴⁶⁾ 1914~15년

41) 1913년부터 시행된 ‘조선육접(陸接)국경관세령’에 따라 간도 지방의 곡물을 한반도 북부 지방으로 수출할 때에는 관세가 면제되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3분의 1 감세’가 적용되어 수출이 촉진되었다(우영란, 『일제시기 ‘간도’와 조선간 무역에서의 관세문제』,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8, 2001).

42) 飯田延太郎, 『間島事情概叙』, 1922, (外務省記録『各国事情關係雜纂·支那ノ部·間島』)

43) 앞의 책, 『滿洲事情·第二輯』, 242쪽

44) 南滿洲鐵道總務部調査課, 『吉林省其1(吉会線關係地方)』, 1919, 120쪽

45) 石川亮太, 「1910年代滿洲における朝鮮銀行券の流通と地域經濟」, 『社会經濟史学』 68卷2号, 2002.; 石川亮太, 『近代東アジア市場と朝鮮』, 名古屋大学出版会, 2016.

46) 앞의 책, 『滿洲事情·第二輯』, 242-244쪽, 「大正三年九月六日·在琿春副領事北条大洋發信外務大臣加藤

에는 홍수로 인해 훈춘현 농산물이 타격을 입으면서 수출량 전반이 급감했다.⁴⁷⁾

그러다가 1916년 이후 무역액은 증가추세를 보이게 된다. 그 이유는 “노령 방면에 대한 거래가 부활되어 농산물 및 일본 제품의 재수출 전망이 보이자 일본에 대한 지방 농산물, 특히 흰콩 등의 수출이 급증하고 또한 지방 농민의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무역이 현저히 활기를 띠게 되었다”⁴⁸⁾라고 하듯이 일본과의 무역 신장이 그 이유였다.

수입품목별로 이를 검토하면 면제품 중 일부는 훈춘을 거쳐 다시 러시아로 재수출되었는데 러시아에서의 ‘사라사(更紗: 목면 염직공예품-번역자주)’ 생산이 끊기자 일본 제품이 이를 보충한 것이었다. 또 성냥 역시 훈춘을 거쳐 러시아로 재수출되고 있었다. 석유는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미국산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일본산 석유가 이를 메우려고 수입되었지만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그 외에는 일본산 껌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⁴⁹⁾

수출품은 곡류, 목재, 콩, 가공품 등 특산물 수출과 외국 수입품의 재수출인데, 전반적으로 지방 농산물이 풍작인 데다 러시아에 대한 식료품 수출 급증, 일본의 콩 시세 호황이 영향을 미쳤다.⁵⁰⁾

高明宛·欧州戦乱影響ニ関スル件」, (外務省記録, 『欧州戦争ノ経済貿易ニ及ホス影響報告雜件·経済関係報告·第一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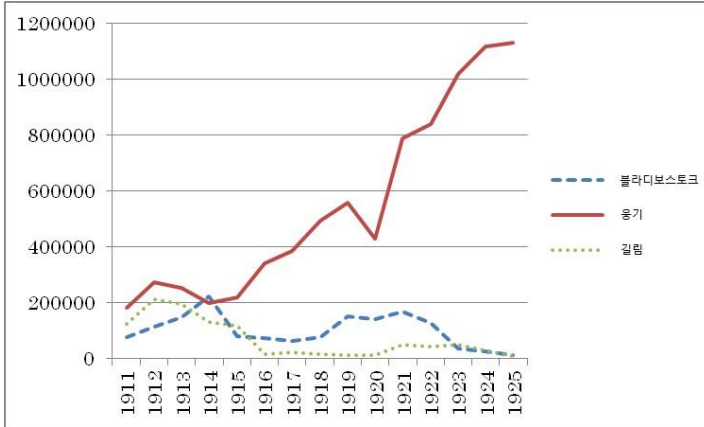
47) 朝鮮軍司令部, 『輝春県概況』, 1918.8, 163쪽.

48) 앞의 책, 『滿洲事情·第二輯』, 242쪽.

49) 앞의 책, 『滿洲事情·第二輯』, 248-24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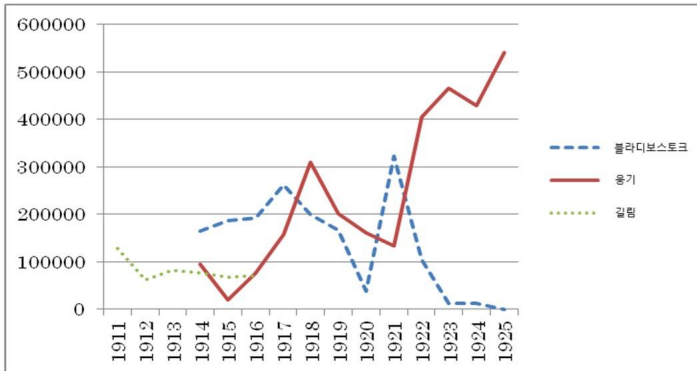
50) 앞의 책, 『滿洲事情·第二輯』, 249쪽.

<표6> 1910~20년대 전반 훈춘 무역(수입)추이



출처) 朝鮮銀行調査局, 『琿春地方ニ於ケル經濟狀況』, 1918; 在間島日本總領事館琿春分館, 『大正十年琿春貿易年報』, 『大正十一年琿春貿易年報』(外務省記録, 『各国貿易狀況雜纂 琿春ノ部』); 滿鉄東亞經濟調査局, 『東部吉林省經濟事情』, 1928에서 작성.
단위) 해관량(海關兩)

<표7> 1910~20년대 전반 훈춘 무역(수출) 추이



출처) <표6>와 같음

V. 1920년대 전반 훈춘 일본인사회의 변용

1. 1920년대전반 훈춘 일본인사회

1924년 시점에서 훈춘 거주 일본인 인구를 보면 훈춘현의 상부지는 총 137호, 남성 194명, 여성 157명, 총 351명으로 경신참변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상부지 이외에도 호수 22호, 남성 24명, 여성 18명, 총 42명이 거주하여 생활지역이 확대되었다.⁵¹⁾ 직업별로 취업인구가 많은 직업을 보면, 관리와 공무원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상부지 밖의 일본인 거주자는 영사관 관계자였다. 다음으로 회사원·은행원 등 출장자, 그 밖에 목수, 목재·석재업과 예기·작부 등이 있었다.

·<표 8> 1924년 훈춘 거주 일본인 주요 직업표

직업	상부지 내				상부지 외			
	직업자		가족		직업자		가족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공무원	78		14	63	19		3	11
회사원	31		2	3				
목석재	5		1	4				
목공	8		2	3				
접대업		14						

출처) 在間島日本總領事館理春分館, 「理春地方事情」, 1925(外務省記録『各国事情關係雜纂·支那ノ部·吉林省·第一卷』)

51) 在間島日本總領事館理春分館, 「理春地方事情」, 1925(外務省記録『各国事情關係雜纂·支那ノ部·吉林省·第一卷』).

<표 9> 1920년대 전반 훈춘 거주 유력 일본인 명부

성명	회사	업종	출신지
스기우라	수기우라양행	무역상	아이치
요시다	후쿠오양행	무역상	교토
히코사카	히코사카상점	잡화상	아이치
야마시타	대륙목재회사	목재상	오사카
시바타	시바타상점	목재상	후쿠이
야마다	청진목재회사	목재상	히로시마
미야모토	미야모토상점	목재상	히로시마
나구라	나구라상점	목재상	아이치
후지사와	구라모토상점	잡화상	가가와
마쓰오카	마쓰오카상점	된장, 간장 양조업	나라
미야케	미야케상점	과자제조업	오카야마
오치이와	아사히상점	일본옷상점	히로시마
세토구치	세토구치상점	목재상	사가
가도히로	훈화상점	목재상	히로시마

출처 <표8>과 같음.

또 훈춘 일본인사회의 유력자는 <표 9>와 같다. 훈춘 거주 일본인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히로시마(廣島) 38명, 아이치(愛知) 31명, 나가사키(長崎) 21명, 구마모토(熊本)·가고시마 각 25명이다. 훈춘 일본 유력자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유력자의 연고에 의지해 훈춘으로 온 사람이 많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유력 인사 대부분은 ‘훈춘 목재’를 다루는 목재상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 훈춘 일본인회에서는 훈용우체국 신설 및 훈용-훈춘 간 증요우편물(환전공용 우편물)의 체송(遞送)·취급을 시작했다. 그리고 새로이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 포교사에 의해 일본인 소학교도 개설되었다.

2. 1920년대 전반의 훈춘 무역과 일화배척운동

1) 1920년대 전반 훈춘 무역

1921년의 무역총액은 146만 1, 095해관량(海關兩)으로, “훈춘 지나(支那)해관 개설 이래·미증유의 최고기록”이었다. 그 중 조선 경유 무역액은 92만 1, 775량으로 전체 무역액의 63%를 차지하였다. 같은 해-웅기항이 개항되면서 이 중 72%는 웅기 경유의·일본산 일용품으로 ‘일본 상권이 거의 확립’된 상황이 되었다.⁵²⁾

1922년은 전년에 비해 무역총액이 증가하였으나 봄에는 봉직(奉直)전쟁 발발에 따른 계엄령 선포로 인해 상황(商況)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었다. 여름에는 두도구(頭道溝) 마적 습격 사건으로 민심의 동요가 거의 극에 달했다. 가을에는 소비에트연방의 성립에 따른 정치적 혼란으로 대러 무역이 “일대좌절”되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옹기 경유 무역액수는 수출입 모두 ‘공전의 활황(活況)’을 보이며 전체 무역액의 89%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⁵³⁾

1923년은 “해당 지방(블라디보스토크-인용자주)의 불령선인 발호가 극심하여 본 지방과의 왕래가 위협에 빠져 화물 운수가 불가능해지고 해당 지방과의 거래는 두절, 길림계 내지 무역은 마치 화물 폭주기(輻輳期)에 산간 도로에는 마적이 늘 횡행하기 때문에 동 지방과의 거래도 자연 휴지(休止)”⁵⁴⁾, 봉직전쟁 발발은 “(길림관첩-인용자주) 남발 때문에 시세의 급락은 거의 멈출 길이 없는 등의 사정이며 상가(商家)는 금융핍박으로 인해 대부분 자금을 회수하고 잠시 쉬어가는 상태로 활발한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⁵⁵⁾ 등 전반적 불황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간도 훈춘지방의 밀 흥작으로 인해 기존 간도지방에서 공급받는 토제 맥분(土製麥粉)의 이입 두절을 예측하여 옹기를 경유하여 입하하는 일본 및 미국산 맥분은 비정상적인 금액”에 달했다. 농산물은 “4월 이후 대러 거래의 좌절로 인해 대부분 일본으로 가서 대일 수출액의 급증을 초래함에 따라 수입 일본품의 증가를 더욱 촉진하고 이에 옹기 경유 수출입 무역은 미증유의 일대 성황”⁵⁶⁾을 이루었다.

1924년에는 국경지방 러국 관헌은 순라병(巡邏兵)을 파견하여 국경을 순찰 감시하고 입국자의 단속을 엄격히 하였다. 만약 국경을 출입하는 밀수꾼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화물 몰수 후 이를 엄벌에 처하고, 심지어 입경자를 중국·일본관헌의 밀정으로 오인하여 체포 감금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한 사례가 한두 번에 그치지 않는 상태가 되어 러시아 방면과의 무역은 계속 위축되고 있었다. 길림계 경유 무역은 여전히 마적으로 인한 치안 불안으로 화물 운수가 거의 두절 상태였다. 농산물은 결빙 중에 한창 수출돼 품귀현상을 빚고 있고 매점매석으로 인해 시세가 상승하고

52) 在間島日本總領事館琿春分館, 「大正十年琿春貿易年報」(外務省記錄, 『各国貿易狀況雜纂 琿春ノ部』).

53) 在間島日本總領事館琿春分館, 「大正十一年琿春貿易年報」(앞의 자료, 『各国貿易狀況雜纂 琿春ノ部』).

54) 在間島日本總領事館琿春分館, 「大正十二年琿春貿易年報」(앞의 자료, 『各国貿易狀況雜纂 琿春ノ部』).

55) 「大正十二年六月二十七日·在琿春副領事佐藤今朝成發信外務大臣內田康哉宛·琿春市況報告ノ件」(外務省記錄, 『商況報告雜纂·支那之部 第二卷』).

56) 在間島日本總領事館琿春分館, 「大正十二年琿春貿易年報」(앞의 자료, 『各国貿易狀況雜纂 琿春ノ部』).

가격 급등을 초래하였기에 훈춘현 방곡령이 포고되면서 콩과 흰콩을 제외한 곡물 수출이 급감했다. 이런 가운데 “웅기 계통에 속하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무역은 계속 활황을 보이고 그 중 맥분 및 술지게미 수입은 현저한 급증”⁵⁷⁾했다.

1925년 상반기에는 조선인·중국인 농민 중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자마저 다수 발생하는 데 이르렀다. 중국 및 일본 당국의 각종 구제 자금 상당액을 빌려 보아도 제반 경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민중들의 음식이 결핍되고 곡식가격이 폭등하여 3, 4월경부터 [조선내지 및 간도의 오지에서 노령으로 향하는 조선인의 대이주가 일어났으며 한때 러시아와 중국 국경에 이주민들이 운집하였는데 그들이 가져오는 술지게미, 면사포, 식료품 등 밀무역이 되는 것은 해관 통계 이외에 더욱 놀랄 만한 수치가 되었다. 여름철이 되어 농작물의 풍작이 예상되자 중국 화남, 북경, 천진 방면에서 들어오는 상인이 투자하는 목재 매입 자금이 유입되어 사전 경기로 인해 연말 농가의 필수품을 예측 매입하는 자가 있었다. 또한 특산 콩, 팥, 보리, 조의 예매가 시작되었고, 방곡령도 해금되어 일본의 모지(門司), 시모노세키(下關), 우지나(宇品)로 수출되었다.⁵⁸⁾

이처럼 1920년대 초반에는 블라디보스토크 방면, 길림 방면 정치 정세의 불안, 치안 불안이 심각해질 정도로 훈춘 무역에서 웅기 경우 대일 무역이 활발해졌고 그 결과 일본 상권이 우세해지는 기형적인 현상이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군 참모부에서는 “대정9년(1920년-번역자주) 훈춘사건 이후, 훈춘은 절대위험지역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적고 식민지적 관념은 한층 더 강해져 매사가 이기주의로 흐른다. 민회 혹은 일본인 발전책에 관해 실로 국가적 정신으로써 공헌하고자 하는 인사가 극히 드물다. 또한 감독 관청의 지도도 시대의 진운(進運)에 따르지 않는 것이 많은 듯 하여 공공 단체적 사업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음이 유감이다”⁵⁹⁾라고 하며 훈춘 일본인 사회의 ‘식민지적’ 성격을 문제 삼았다.

2) 일화배척운동의 고양

1920년대 전반에는 ‘대화(對華) 21개조’에 반대하는 일화배척운동이 계속되었다. 1922년부터는 ‘여대 회수운동’이 발발하였다. 더구나 1923년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57) 在間島日本總領事館琿春分館「大正十三年琿春貿易年報」(앞의 자료, 『各国貿易狀況雜纂·琿春ノ部』).

58) 在間島日本總領事館琿春分館「大正十四年琿春貿易概報」(앞의 자료, 『各国貿易狀況雜纂·琿春ノ部』).

59) 앞 자료, 「大正十二年 琿春事情」.

학살당한 중국인 유학생 왕희천(王希天)이 길림 출신이어서 5월 ‘국치기념일’에는 길림 현지의 중국계 학교, 법정(法政)전문학교, 여자사범학교, 길림 제일사범학교 학생들이 구성된 길림학생회 등을 중심으로 격문 살포 등의 배일운동이 고양됐다.⁶⁰⁾ 길림학생회에서는 격문 살포 외에 “도쿄지진에서 참사당한 왕희천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한 기부금을 모집할 것, 국화(國貨)를 존중하고 일화 배척을 단행할 것” 등을 결의했다.⁶¹⁾ 성 의회와 각 학교, 일부 상점에서도 국기를 게양하며 학생들의 국치기념운동에 호응하는 움직임을 보였다.⁶²⁾

이런 가운데 1924년 5월 연변각지의 ‘공민’ 대표자들은 길림성장 앞으로 「연춘화왕 4현 공민청원서(延輝和汪四縣公民請願書)」를 제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변(延邊) 각 현은 동쪽성의 목구멍(咽喉)으로 국방상의 중요지역이다. 일본인이 군침을 흘리고 경영한 지 오래되었고 경찰을 설치하여 우리 내정에 간섭하고 민회를 조직하여 우리 치안을 어지럽히고 구제회를 사설(私設)하여 몰래 우리 국토를 매수하는 등의 침략 정책은 모두 우리 연변을 망하게 할 계략이니 …… 한(韓)의 망함은 전거가감(前車可鑑:반면교사)과 유사한 뜻(번역자주)이니 여순과 대련을 잃는다면 후회가 막심하리라… (1) 구제회 취소, (2) 일본 경찰 철수, (3) 거류민회 단속, (4) 주둔군의 군비 증가. 이상의 몇몇 항목은 일본인의 연변 침략의 각 절(節)에 관한 것으로 누차 연결도운에서 최대한 교섭해도 일인은 항상 겉으로는 승낙하고 뒤로는 다르게 이행한다…우리 동3성의 힘으로 그들과 힘써 싸워 원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2의 망한(亡韓) 상태에 이르리라.⁶³⁾

이에 1926년에는 훈춘 상무회장 왕지초(王志超)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왕년에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과 같은 이들은 우리들의 은인으로 만약 안중근이 없었다면 지나는 수년 전에 일본의 영토가 되었을 것이기에 앞으로는 아무쪼

60) 「大正十三年四月二十八日, 在吉林總領事代理深沢暹發信外務大臣松井慶四郎宛, 支那學生ノ旅大回収運動ニ関スル件」(外務省記録, 『支那排日關係雜件 第六卷』). 여대(旅大)회수운동이란, ‘21개조 요구’ 폐지, 일본의 여순(旅順)과 대련(大連)의 조차권 기한 종료로 인한 중국으로의 반환, 일본의 이권 철폐 등을 위해 전개된 운동이다(번역자주).

61) 「大正十三年七月十八日, 在吉林總領事代理深沢暹發信外務大臣幣原喜重郎宛, 在上海國民對日外交大會ノ激烈ナル排日通電ニ関スル件」(앞의 자료, 『支那排日關係雜件 第六卷』).

62) 「大正十三年五月十六日, 在吉林總領事代理深沢暹發信外務大臣松井慶四郎宛, 吉林ニ於ケル國恥紀念日ノ狀況ニ関スル件」(앞의 자료, 『支那排日關係雜件 第六卷』).

63) 「大正十三年六月一日, 在琿春副領事田中正一發信外務大臣松井慶四郎宛, 排日請願ニ関スル件」(앞의 자료, 『支那排日關係雜件 第六卷』).

록 이러한 선인을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⁶⁴⁾

위 사료에서 볼 수 있듯이 1920년대 전반의 연변 상황을 ‘제2의 망한’으로 한반도의 식민지배에 겹쳐 생각하며 안중근을 ‘우리들의 은인’이라고 하고 “이러한 선인을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고 논하고 있다. 안중근과 단지동맹을 맺은 황병길의 독립정신이 그의 사후에도 안중근에 대한 추도라는 형태로 훈춘 사회에 뿌리내렸음을 알 수 있다.

VI.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훈춘 일본인 사회는 러일전쟁 이후 몇 명의 일본인 ‘작부’ 여성에서 출발했다. 현지 일본영사관 설립 이후에는 페스트 방역과 3·13운동, 5·4운동 등 반일운동이 고양될 때에는 영사관 통제 아래 재향군인을 중심으로 자위단을 조직해 대응했다. 훈춘 일본인사회는 영업통제나 공중위생문제를 통해 일본영사관 통제하에 있었고, 아울러 주변 중국인 사회나 한국독립운동으로부터 항상 안전을 위협받는 사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가권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훈춘사건으로 일본인 부녀자를 포함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훈춘 일본인회에서는 일본 정부에게 계속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중국과의 외교 교섭은 난항을 겪었다.

둘째, 1910년대 일본상권이 확대됨에 따라 간도와 한반도 북부 지역 사이의 사회경제적 관계는 긴밀해졌다. 이러한 간도 무역의 변용 속에서 훈춘 무역은 상대적으로 낙오되었다. 이에 훈춘 무역은 러시아혁명과 시베리아 출병, 옹기항 개항, 봉직전쟁 발발과 치안불안과 같은 여러 요인들을 배경으로 옹기를 통한 일본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였다.

셋째, 훈춘사건을 거치면서 훈춘을 위협시키는 시각이 일본인들 사이에 자리잡았고 훈춘 재류 일본인 사회에는 ‘식민지적 관념’이 강해 정상적인 사회 발전을 이뤄낼 수 없었다. 한편 1920년대 초반에 들어서자 간도지역에서도 일화배척운동이

64) 「大正十五年十一月一日, 在琿春分館主任田中作發信外務大臣幣原喜重郎宛, 本邦高官名士ノ來琿ニ関シ琿春商會長ノ為シタル排日の演說ニ関スル件」(外務省記録, 『支那排日關係雜件 第八卷』).

활발해지면서 안중근과 황병길을 비롯한 한국독립운동을 현창하는 시각이 훈춘 사회에 뿌리내렸다.

참고문헌

1. 한국어

- 김동화, 1991, 『中国朝鮮族獨立運動史』, 느티나무
김소진, 1999, 『韓國獨立宣言書研究』, 국학자료원
김주용, 2000, 「일제의 대간도금융집약정책과 한인의 저항운동」,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김주용, 2010, 「황병길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
김태국, 2000, 「청산리전쟁전후 북간도지역 일본영사관의 동향과 그 성격」, 『한국사연구』 111
우영란, 2001, 「일제 시기 간도와 조선무역에서의 관세문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8
尹煜, 2016, 「“二等公民擡頭”下的 琿春」, 『東洋史學研究』 136
최석승, 2015, 『훈춘조선족이민사』, 연변교육출판사
황민호, 2020, 「청산리전투에 관한 연구성과와 과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5

2. 中文

- 许寿童, 2010, 「关于间岛惨变研究与纪念问题」, 『만주연구』 10

3. 日本語

- 井上学, 1973, 「日本帝國主義と間島問題」, 『朝鮮史研究会論文集』 10
佐々木春隆, 1979-1980, 「『琿春事件』考(上·中·下)」, 『防衛大学校紀要人文·社会科学編』 39-40-41
東尾和子, 1977, 「琿春事件と間島出兵」, 『朝鮮史研究会論文集』 14
金静美, 1986, 「朝鮮獨立運動史における1920年10月」, 『朝鮮民族運動史研究』 3
李盛煥, 1991, 『近代東アジアの政治力学』, 錦正社
柳沢遊, 1999, 『日本人の植民地体験』, 青木書店
芳井研一, 2000, 『環日本海地域社会の変容』, 青木書店
塚瀬進, 2004, 『満洲の日本人』, 吉川弘文館
孫穎, 2012, 「『琿春事件』の事後処理について：間島における朝鮮墾民を中心として(1920~1923)」, 『法政大学大学院紀要』 69
楊圓, 2015, 「偽満洲国首都『新京』の日本人社会の形成に関する研究」, 岡山大学大学院社会文化科学研究科, 『文化共生学研究』 14
麻田雅文, 2016, 『シベリア出兵』, 中公新書
石川亮太, 2016, 『近代東アジア市場と朝鮮』, 名古屋大学出版会

○ 日本国会図書館所蔵史料

- 滿鉄東亜經濟調査局, 1928, 『東部吉林省經濟事情』
滿鉄総務部調査課, 1919, 『吉林省其1(吉会線關係地方)』

飯田延太郎, 1921, 『間島事情概叙』
外務省通商局, 1915·1919, 『在支那本邦人進勢概覽』
_____, 1920, 『滿洲事情·第二輯』
朝鮮銀行調査局, 1918, 『琿春地方ニ於ケル經濟狀況』
咸鏡北道地方課編, 1924, 『咸北要覽』(1926年改訂5版)

○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史料

『支那人日本品ボイコット一件日支交渉前後·第五卷』
『滿洲ニ於ケルペスト病勢及予防措置報告·第一卷』
『各国内政關係雜纂·支那ノ部·第十三卷』
『各国事情關係雜纂·支那ノ部·吉林省·第一卷』
『各国事情關係雜纂·支那ノ部·間島』
『支那ニ於テ日本商品同盟排斥一件·第四卷』
『琿春ニ於ケル朝鮮人暴動一件·発端及經過情報ノ部·第一卷』
『琿春ニ於ケル朝鮮人暴動一件·在留民請願及決議ノ部』
『琿春ニ於ケル朝鮮人暴動一件·本邦側被害ノ部·被害申告書·第一卷』
『欧州戦争ノ經濟貿易ニ及ホス影響報告雜件·經濟關係報告·第一卷』
『各国貿易狀況雜纂·琿春ノ部』
『商況報告雜纂·支那之部第二卷』
『支那排日關係雜件·第六卷』
『支那排日關係雜件·第八卷』
外務省通商局, 1916, 『領事館令集』
外務省, 『第四十五議會説明資料·亜細亜局第三課管掌事項』
朝鮮軍司令部, 1918, 『琿春県概況』
陸軍省, 『自大正十二年至大正十三年朝鮮軍參謀部発朝特報二関スル綴』

○ その他刊行史料

『外務省警察史』 19·20·21卷, 不二出版復刻版 (1998年)
『朝鮮統治史料』 第2卷, 韓国史料研究所 (1970年)
国家報勲処, 2003, 『間島事件關係書類(Ⅰ·Ⅱ)』
金正明編, 1967, 『朝鮮独立運動Ⅲ』, 原書房

투고일 : 2021년 03월 21일, 심사완료일 : 2021년 04월 23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4월 23일

■ Abstract ■

The Hunchun Incident in 1920 and the Japanese residents in Hunchun

Tanaka Ryuichi (Yanbi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Hunchun Incident, which w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dispatch of Japanese Troops to Yanbian in 1920. Three issues will be addressed in focusing on the formation of the Japanese society in Hunchun.

First, the Japanese society in Hunchun started with a few Japanese prostitutes after the Russo-Japanese War. Japanese people in Hunchun, who were controlled by the Japanese consulate, organized local military personnel against anti-Japanese movements such as the March 13 and May 4 movements, and so on.

The Hunchun incident in 1920 caused a lot of human and material damage including the death of Japanese women and girls. The Japanese in Hunchun continued to petition the Japanese government for compensation for their damages, but the diplomatic negotiations between Japan and China were difficult.

Second, socio-economic relations between Yanbian and North Korea became closer during the 1910s, while the trade between Hunchun and Ungi, the port town in North Korea, also was increasing.

Thirdly, after the invasion by Japanese troops in 1920, the Japanese residents in Hunchun regarded Hunchun as a Japanese colony. Their economic and commercial activities hindered their normal social development in Hunchun. During the early 1920s, the Chinese boycott movement against Japanese products also became active in Hunchun. Chinese people in Hunchun had the perspective of praising the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such as An Jung-geun and Huang Byong-gil.

Key words: Hunchun, Japanese Imperialism, Yanbian, Huan Byong-gil, An Jung-geun